**교회목표**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Pilgrim

**2009년도 표어**

섬겨야 합니다 (갈 5:13, 전 11:1)

**행동지침**

1. 민족 복음화의 산실되어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실현하자
2. 신앙의 대잇기 모범을 보이자
3. 교육에 대한 국가적 비전을 제시하자

†발행인 : 이 종 윤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 seoulchurch.or.kr


시편강해

# 선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 (시편 118:1-29)

시편 118편은 117편의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를 주 메시지로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 1.과거로부터 행진할 때

본 시는 이스라엘 회중들이 축제 행진시 사용했던 시입니다. 이 시에는 반복되는 말들이 나옴으로 행진할 때 부를 수 있는 노래로 적합합니다. 또한 이 시는 애굽 할렐시의 마지막이며 클라이맥스입니다.

본시는 애굽의 종 되었던 때로부터 구원 되어 시온산에 이르러 그곳에서의 보호와 기쁨을 제시합니다. 유대인들이 노예로부터 구원받은 것과 국가를 세우게 된 것을 기억하며 부른 시편 118편은 우리도 감사하므로 읽어야 합니다.

이종윤 목사 (서울교회 담임)
Jong-yun Lee ( Senior Pastor)

### 2.크리스천의 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본 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크리스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기억하며 불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절 기사에서 본시가 언급되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사실 이 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시로써, 메시아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 중요 구절들이 신약의 예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시편 118편은 메시아 시중 마지막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 3.산 자는 여호와를 찬양 한다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오직 산 자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죽은 자처럼 침묵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 구원 받았고 보전되고 있다면 하나님의 증거자가 되기 위해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17절) 라고 했습니다.

###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27-29절은 하나님과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관계를 능력 있게 말씀합니다.

①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27절)
②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28절)
③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29절)

그는 핍박을 받았으나 하나님은 그를 핍박에서 풀어주셨습니다.
그는 공격을 받았으나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는 타락에 관해 말했으나 하나님은 그를 선하게 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받은 사람은 어찌해야 합니까? 죄를 떠나 구원받은 이들에게는 사명이 주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일진대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부지런히 충성을 다해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열방에 빛을 비춰야 합니다.

# Giving thanks to the Lord who is good.
## (Psalms 118:1-29)

Psalm 118 continues to repeat Psalm 117, "For great is his love toward us, and the faithfulness of the Lord endures forever," as the main message.

### 1. When Israelites marched in the past

This psalm was used when the Israelites marched in the festivals for deliverance. Because the words appear repeatedly, it is appropriate for them to sing this hymn when they march. Moreover, this is the last song of the Egyptian Hallel and its climax.

This psalm represents the protection and joy that the Jews experienced from the time when they were slaves in Egypt, to the time when they were delivered and brought to Mount Zion. Remembering their deliverance as slaves and rebuilding their nation, they may have been singing this hymn. We should also read this psalm with thanksgiving.

### 2. The Christian's Psalm

Remembering the work of Jesus, not only Jews but all Christians should be singing this Psalm about the Lord's mercy. It is surprising that this Psalm was mentioned in the article about the suffering of Jesus Christ. In fact, this Psalm was about the Lord who saved Israel. It didn't say Messiah directly, but many important phrases were frequently mentioned in the New Testament about Jesus. In these respects, we can say that Psalm 118 is the last of the Messianic hymns.

### 3. Those who are alive, praise the Lord!

The man who was dead was silent. Only a man who is alive can praise the Lord. Are we not holding our tongue like a dead man? If we were saved and protected by the Lord, we should be living to become the Lord's witnesses. Therefore, the psalmist says, "I will not die but live, and will proclaim what the Lord has done."(v 17)

Conclusion: Verses 27-29 of this Psalm talk about our relationship to God Almighty.

(1) The Lord is God (v. 27).
(2) You are my God (v. 28).
(3) Give thanks to the Lord, for he is good; his love endures forever (v. 29).

Though he was oppressed, the Lord freed him. Though he was attacked, he was saved by the Lord. Though he talked about apostasy, God saw him good.

What do those who are saved by Jesus Christ do? God's calling was given to those who were delivered from sin. If we are like them, then we should give thanks to the Lord, first of all, and diligently devote ourselves to the calling that the Lord has given us. We should make his light shine upon all nations.


■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

· TV : 케이블 CH 42(CTS,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412(CBS TV) 매주일 밤 9시(각 지역별로 케이블 TV로도 시청가능)
KISB(코리아 위성방송) 제3채널(북중미 지역 해외방송) 매주 월 오후 1시30분(한국시간)
· 라디오 :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 인터넷 : 기독교 TV (http://www.cts. tv) · 기독교 방송 (http://www.cbs.co.kr) · 중국어 인터넷방송 (http://www.c-highway.com)

# 제2대 목사로 박노철 목사를 청빙키로

## 7월1일(수) 당회에서 만장일치 가결 / 오늘 찬양예배 후 특별 제직회

우리교회 2대 목사를 마침내 당회에서 결정하였다. 지난 7월1일(수) 특별 당회를 소집하고 기도한 후 그동안 추천된 박노철 목사에 대한 찬반 투표 결과 만장일치로 2대 목사로 청빙할 것을 은혜롭게 가결하였다.

이종윤 위임 목사가 2010년 말로 정년이 됨으로 2대 목사를 청빙해야 하는 시점에서 2008년 8월 15일 아가페타운에서 열린 당회원 수련회에서 후임목사 청빙을 위해 10가지 기도제목을 제시 한바 있으며 2009년 6월말까지 후임자가 가시적으로 찾아지기를 희망하고, 기회있을 때마다 후임자를 위한 기도를 하고 올 5월말까지 추천 마감을 하되 기획위원회가 이 직임을 대행키로 하였다.

2009년 홍해작전에서 온 교회는 이 일을 위해 구체적인 기도를 했고, 홍해작전이 끝난 6월 26일, 기획위원회는 제2대 목사청빙을 위한 기도를 하고 지금까지 추천된 한 분 곧 박노철 목사를 확인하고 각각 그 추천이유를 밝힌 후 만장일치로 결정하였으며 이를 6월 28일(주일) 임시당회에 보고했다. 그 후 3일간 당회원들이 모여 하루 한 끼 금식기도를 한 후 지난 수요 2부 예배후 특별당회를 소집하여 박노철 목사를 청빙할 것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다. 당회의 결의는 오늘 찬양예배 후에 소집되는 특별제직회에 상정되어 동의 절차를 거친다.

박노철 목사는 1965년 3월3일 생으로서 1991년 캐나다 요크대학교 철학과(York University B. A.)를 졸업한 후 1994년 미국 필라델피아 소재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M. Div.)을 졸업하였다. 그 후 귀국하여 1996년 사당동 총신신대원(M. Div.)에 편입하여 제89회 졸업하였으며, 1999년 총신대학교 대학원(Th. M. 한국교회사)을 졸업하였다. 2009년 현재 미국 시카고 소재 트리니티 신학교(Trinity Evangelical Divinity School)에서 목회학박사(Doctor of Ministry)과정을 이수 하는 중에 있다.

목회경력은 1992년부터 1994년까지 빌라델비아 장로교회 교육전도사, 1995년부터 1999년까지 충현교회 전도사, 강도사, 목사안수(동시통역, 소년부), 1998년 10월 목사안수(예장합동 동서울노회), 1999년부터 2005년까지 지구촌교회 부목사(영어부, 제자훈련부)로, 2005년부터 현재까지 구리지구촌교회를 개척하여 담임목사로 시무 중이다.

# 요한 칼빈 탄생500주년기념
# 연합과 일치 위한 「장로교의 날」

## 7월10일(금) 오후5시~8시 장충체육관
## 7월 9일(목) 오후 7시30분 – 연합찬양대 최종연습 서울교회에서

요한 칼빈 탄생 500주년을 맞이하여 칼빈의 생일인 7월10일 개혁주의 신앙의 후예들인 장로교인들이 장충체육관에 모여 연합과 일치를 위한 「장로교의 날」(준비위원장: 이종윤 목사)대회를 선포한다. 한국장로교 총연합회 주최로 이 날 오후5시부터 시작되는 대회는 1부(5:00~5:30) 개회식 및 주제강연(문병호 목사), 2부(5:30~6:30) 전통적 개혁주의 예배(설교: 김삼환 목사, 성찬집례: 최병남 목사, 축도: 방지일 목사), 3부(6:30~7:00) 비전 제시(오치용 목사)에 이어서 4부(7:00~8:00) 축제한마당(안양대 오케스트라 외 성악가)의 순서로 이어진다. 연합과 일치를 위한 「장로교의 날」을 선포하는 목적은 장로교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2012년 한국장로교 100주년을 맞이하여 장로교의 연합과 일치를 도모하며, 2015년 광복 70주년을 바라보며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건설하여, 장로교의 연합과 일치를 통해 세계복음화의 교두보를 놓는 데 있다.

한편 이날 개회예배전 정오12시에 26개 회원교단 전임원 기도회 및 간담회가 남산 자유센터에서 오찬과 함께 만남의 시간을 갖게 된다. 이 날 서게 될 연합찬양대와 오케스트라의 최종연습은 7월 9일(목) 오후 7시30분 서울교회에서 있다.

서울교회 모든 성도들의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리며 당일 다락방 모임과 금요심야기도회는 장로교의 날 행사로 대치하고 많은 성도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기도한다. 장충체육관에는 주차장이 없으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바란다.

(지하철 3호선 동국대입구역 5번 출구)

# 오늘은 맥 추 감 사 절

## 주일예배 시간–성찬식 / 찬양예배 시간– 교육1국 어린이들 특별찬양

오늘 우리교회는 '맥추감사절'로 지킨다.

맥추감사절은 밀 보리 수확 곧 올해 처음 익은 곡식을 거두어 감사하는 절기이며, 십계명을 주신 날이고 오순절 성령강림의 날로 교회의 탄생일이기도 하다.

우리교회는 이 기쁜 맥추감사절을 맞아 주일 Ⅰ,Ⅱ,Ⅲ부 예배 시간에 감사헌금을 드리고 성찬식을 거행하며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한다. 찬양예배 시간에는 교육1국 어린이들이 준비한 특별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유아부는 성경암송(로마서 5장)과 찬양율동(하나님 고맙습니다 외 2곡), 유치부는 찬양율동(믿음의 씨앗 외 1곡), 유년부는 찬양율동(프로포즈 외 1곡), 초등부는 찬양율동(내 마음을 가득 채운 외 1곡), 유년초등연합찬양대찬양(이전에 난 외2곡)으로 찬양 드린다.

# 군선교사 파송

## 육군 706 특공연대 새생명교회 윤왕모 강도사 파송

현재 공석 중인 육군 706 특공연대 새생명교회에 윤왕모 강도사를 파송하기로 하였다. 윤 강도사는 1959년 1월25일생으로 고신대와 대전신대 총회신학, 신대원을 졸업하고 대신총회신학대학원을 마쳤다. 홍천희망교회 청년부 담당을 하였으며 3879부태 2대대 다산교회에서 담임교역자로 있었다. 윤 강도사는 앞으로 육군 706 특공연대 새생명교회에서 군장병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선교활동을 펼치게 되며 오는 10월에 목사 안수를 받을 예정이다.

# 신앙강좌부 첫학기 수료

올해부터 1년 2학기제 평신도 신학과정으로 다시 시작한 신앙강좌1부와 2부는 지난 주일까지 첫학기를 모두 마치고 다음과 같이 1학기 수료자를 배출하였다.

7월부터 신앙강좌1부(지도: 김영한 목사)는 '기독론'을 신앙강좌2부(지도: 김재진 목사)는 '성령론'을 각각 시작한다. 2년을 마치면 '평신도신학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인정되는 신앙강좌부에 성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바란다.

신앙강좌 1부는 주일 오후 12시40분 904호에서 신앙강좌 2부는 701호에 각각 열리고 있다.

**<신앙강좌1부> 성경론 수료자: 31명**

강윤희 김상옥 김수정 김순인 김신애 김은태 김자경 나옥녀 남상경 남순덕 박명석 박정수 서귀용 신동기 신종건 신종현 왕경래 원명희 윤정식 이덕빈 이동환 이부자 이상호2 이성기 이윤영 이정자 정봉금 최명남 최진 최화옥 한옥순

**<신앙강좌2부>인간론 수료자: 102명**

강창숙 고영숙 곽숙 권영월 길창배 김규순 김기욱 김난희 김동두 김미경 김미선 김미성 김사라 김성환 김수경 김숙자1 김숙자2 김순덕 김연화 김영주 김옥순 김웅기 김정숙 김정제 김지은 김진희 김찬진 김태희 김해수 김혜중 문분순 문옥희 박광수 박광옥 박덕호 박상운 박순복 박승재 박시향 박용상 박인규 박정란 박정자 박화실 박희서 박희석 배동금 백명자 서은석 성기호 송정옥 송행희 신성균 신순복 안병숙 안선광 안인호 양호경 오형철 위성남 유관모 유덕자 윤은희 윤현미 이갑수 이광배 이미송 이민숙 이병돈 이영윤 이옥선 이은희 이인수 이종창 이해순 임영숙 장명순 장호림 장호영 전미애 정명숙 정민지 정철환 정춘혜 조민자 조복자 조순엽 주영도 최금숙 최미경 최승환 최영경 최정순 최종희 최향숙 한광마 한선현 한춘홍 허형숙 홍승자 홍증표 황병석

초대합니다. – 사랑부 여름성경학교

# 사랑을 나눠주고 싶어요

**천정윤 성도**
**(사랑부 교사)**

예수님의 사랑이 서울교회 사랑부에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을 비롯한 많은 부분에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가진 분들을 사랑으로 섬기고자 헌신하는 선생님, 그리고 사랑부를 기도로, 물질로 섬기는 서울교회 성도님들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사랑부에는 무엇보다 사랑부 지체들, 저들의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부 지체들의 서울교회를 향한 사랑, 선생님을 향한 사랑,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사랑이 따뜻한 웃음과 몸짓에서 느껴집니다.

사랑부 지체들은 누구보다도 교회 안에서 많은 성도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제 사랑부 지체들은 받은 사랑을 여러분들게 나눠드리길 원합니다. 지금까지는 남에게 베풀고, 남을 사랑하는 방법을 잘 몰랐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수님과 성도님들께 받은 사랑을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사랑부는 오는 11일과 12일 베델하우스와 교회에서 열리는 이번 여름 성경학교에서 예수님께서 보이신 섬김의 모습을 본받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사랑부 지체들이 사랑을 나누는 연습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부 지체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섬김을 본받아 이웃과 세상을, 서울교회에 사랑을 전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을 이뤄드리며 영광돌리는 하늘나라 주인공들이 모두 될 수 있길...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더욱더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새가족부

# 신행일치 삶을 원하며

**신호용 성도 (13교구)**

저는 주중에 청주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금요일 저녁마다 서울에 올라와 주일에는 가족과 함께 서울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한 주간 주일예배가 너무 기다려지고 주일은 시간이 빨리 지나갑니다.

저희 가족은 청주에 살다가 지난 3월 서울로 이사와 섬길 교회를 위해 기도하던 중 서울교회에 오게 되었고, 곧바로 등록하여 새가족부를 수료하고, 지금은 소요리 문답부에서 예배 후 성경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초신자는 아니지만 소요리 문답부에서 기초부터 차근차근 기독교 교리 공부하는 것이 매우 새롭고 재미있습니다.

서울교회에 오니, 모든 것이 짜임새 있고, 프로그램도 알차고, 무엇보다 경건하고 절제된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주일마다 이종윤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지 매번 기대가 됩니다. 지방 근무를 해서인지, 저는 주일예배 때 은혜를 충분히 받으려고 예배에 온 마음을 기울입니다. 그래야 일주일동안 영적으로 생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목사님의 말씀은 한 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며 듣습니다. 뿐만 아니라 찬양 예배 때마다 갖는 작은 음악회는 제 마음을 더욱 풍요롭게 해서 주일 저녁에 성령님과 동행하여 청주로 내려갑니다. 충만한 말씀과 아름다운 찬양과 기도, 무엇보다도 항상 주님이 계신 서울교회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마음이 얼마나 벅찬지 모릅니다. 부족한 믿음을 은혜로 채우시는 주님을 찬양 합니다.

예배를 드리며 주님을 찬양하면서, 자녀들의 얼굴을 보면 매우 사랑스럽고 기쁩니다. 주님께서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이런 마음이 들지 않으실까 생각해 봅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이종윤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목사님은 설교 때마다 신행일치의 삶을 강조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 역시 그런 삶을 살기를 마음으론 원하지만, 때때로 성경 읽는 것도 잊어버리고 심지어는 주님을 잊고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찌하든지 항상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성령께서 제 생활 속에 계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생활에 적용하려 노력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 합니다.

주말 부부로 사는 일, 서울교회를 섬기게 하신 일, 주말마다 가족과 만나고 헤어지는 일등을 통해서 주님은 저희 부족함을 훈련시키시고 채워주십니다.

서울교회에 온 후로 저희 가정은 많은 기도의 제목을 응답 받았습니다. 앞으로 저희 부부가 서울교회를 힘껏 섬기기를 소원합니다.

홍해작전

# 마산에서 왔습니다

**이광환 성도**

매년 서울교회가 홍해작전을 시작하면 타교인이면서도 어련히 이 기도작전에 참석하곤 합니다. 처음엔 30년지기 직장동료인 이광렬 집사의 요청으로 참석했지만 이제는 자발적으로 참석합니다. 경상도 마산에 사는 관계로 매일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어찌 됐든 힘써 참석하여 올해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른 새벽 교회당을 꽉 메운 성도들의 모습에서 서울교회에 대한 부러움으로 해가 다르게 발전하는 서울교회가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모습을 보며 올해는 어떤 모습인지 매번 기대감을 가지고 참석합니다.

특히 올해는 첫 날 홍해작전 참석 후 제1 스데반 회원들과 현재 공사가 한창 진행중인 청평 아가페타운을 방문하였습니다. 기존 건물을 새롭게 보수하고 단장하는 가운데 머잖아 아름다운 아가페타운이 문을 열 수 있을 것 같아 방문자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제1 스데반회가 방문하는 날은 유난히 날씨가 더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계셨으며, 특히 장로님과 집사님들이 땀 흘리며 자원봉사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뒤편 야산에 수 십 년 된 듯한 침엽수 숲속 나무 벤치에 앉아 합심 기도할 때는 모두가 너무 간절하여 손님으로 참석한 저의 마음에 잔잔한 감동이 일었습니다. 서울교회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와 기도하면 그 기도가 모여 강물을 이루어 아마도 큰 기적을 이루어낼 것입니다.

서울교회를 올 때마다 느끼는 것은 훌륭한 목사님을 모시고 신앙 생활을 하는 서울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복이 많은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해마다 홍해작전을 참석하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아가페 타운이 속히 공사를 마무리 해서 연약한 자들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2009 홍해작전 새벽기도회

편지 왔어요 –
국제로잔위원회의장 더그 버잘 목사

## 우리는 한국 교회의 믿음과 비전과 역동성을 보았습니다

존경하는 이종윤 박사님,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나는 당신이 평안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함께 지낸 시간은 정말 즐겁고 유익했습니다.

나는 인도, 중국, 일본을 여행하면서 각 나라 주요 지도자들을 만나서 로잔 2010년 대회와 서울에서의 경험을 이야기 했습니다. (중략....)

이 박사님,

나는 당신의 사려 깊은 행동과 예의 있는 놀라운 환영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서울에서 머무는 동안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지도자들이 한국교회의 믿음과 비전과 역동성을 높이 칭송하고, 온 세계 교회가 배워야겠다는 말을 즐거운 마음으로 서로 나누었습니다. 특히 서울교회에서 헌신된 성도들의 모습은 대회 참여자들에게 커다란 격려가 되었습니다.

(중략...)

우리가 세계 여러 나라를 매 2년 마다 돌면서 이 같은 지도자 모임을 갖지만 우리가 기대하고 원한 것이 바로 이번 서울에서 모임, 그것이었습니다.

장신대의 시설과 학생들의 섬김 사역 역시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서울교회에서 개회 예배의 장엄함과 환영만찬은 우리 모두의 자랑이고, 영광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와 같은 일들을 제공해 주신 당신에게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혹 당신의 기대에 우리들이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나는 깊은 사과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새로운 전기를 가질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당신과 다시 만나서 서로 이야기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서로 나누며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당신의 사역과 모든 생활에 계속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더그 버잘

# 6월 홈페이지 접속자 83,000명 돌파
# 놀라운 성장에 감사!

■ 홈페이지 리포트 http://seoulchurch.or.kr

**6월 신규 업데이트**

1. 로잔 국제지도자대회 2009공식 사이트오픈
2. 칼빈탄생500주년 / 홍해작전2009 서브페이지 개설
3. 서울교회 한글도메인 취득(서울교회.kr/서울교회.com/서울교회.org)
4. 교회소식 및 설교말씀 검색기능 – 해당 내용 목록 하단에 검색기능 추가

**7월 진행상황**

1. 영문홈페이지 제작중
2. 주보PDF 서비스 개발중
3. 성경필사 서비스 기획중

**6월 접속통계 (6월1일 ~ 6월30일)**

· 일평균접속자 : 2,785명 / 월접속자 : 83,539명
· 총페이지뷰 : 326,372건 / 총히트수 :3,400,014건

**서울교회 멀티미디어팀(지도 장석남 목사)이 놀라운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시골의 작은 교회에서 땅끝에 위치한 40여 국가에 이르기까지 실시간으로 이종윤목사님의 귀한 말씀과 서울교회의 사역을 전세계에 알리고 있다. 지난 6월달 접속자 수는 일평균 방문자 약2,780여명, 월 방문자 수 83,539명이라는 실로 엄청난 사람들이 서울교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다양한 말씀과 정보를 접하고 있다.**

주요 상승요인을 보면 로잔국제지도자 대회 및 칼빈탄생500주년기념대회 유치로 외부 방문자수가 크게 증가되었으며, 각 포탈사이트에 등록된 서울교회 관련 키워드 등록으로 검색을 통한 유입 인구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7월달 또한 장로교의 날 행사 및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방문자 수가 더욱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며 인터넷을 통하여 서울교회의 다양한 사역을 전파하는 일에 크게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 장년부 여름 수련회

## 7월 14일(화) 오후7시 / 101호

7월 14일(화) 오후7시, 장년부는 홍인종 교수(장신대)를 초청 강사로 여름수련회를 갖는다. 주제는 **"가정, 그 신비함으로의 초대"**로 이다.

이날 101호(웨스트민스터홀)에서 장년1부 ~ 5부까지 전원이 참석하여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도들의 기도가 요청된다.

# 영어예배부 여름수련회

## 7.31(금)~8.1(토) 청용회관

영어예배부 여름수련회가 "Dependence on God"을 주제 삼아 조슈아 목사를 강사로 7.31(금)~8.1(토)까지 청용회관(경기 김포)에서 열린다.

## 제7기 찬양반주자 양성 위한 통기타 강습

통기타 강습 7기 초급반 과정이 7월 12일(주일) 오후 3시15분에 905호에서 10주간 열린다.

장윤식 집사가 강사로 찬송가, 복음성가 기타반주법을 배우게 되며 선착순으로 20명(사전접수요망)을 모집한다.기타를 처음 배우는 초보자는 누구나 환영하며 통기타와 발판을 피크(단체구입) 준비하여야 한다. 회비는 10,000원(교재비, 운영비)이다. 문의는 사무국이나 장윤식 집사(010-5494-5991)에게 하면 된다.

## 동정

■ 이종윤 목사는 9일(목) 교육백년국가비전실현 1차 모임에 참석한다. 전국장로회연합회 35회 전국장로수련회 특강을 한다. 10일(금)한장총 회원교단 전체임원회를 소집하고(12시), 장로교의 날 대회(5시)를 주관한다.

■ 득녀: 11교구 노선균 성도 김의정 성도 가정 (노문환 장로 장정화 권사 손녀)

■ 득남: 12교구 이장식 성도 진현정 성도 가정 (이갑진 장로 박우주 권사 손자)

■ 권재현 집사(6-7다락방) : 제약/바이오 분야 베스트 애널리스트로 선정 (매일경제신문, 한국경제신문)

■ **주간 식당 봉사** : 루디아전도회(7월5일) 도르가 전도회(7월12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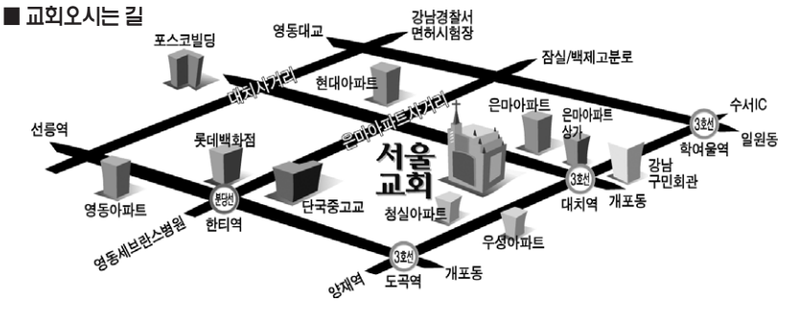
■ **금주의 식사** : 노송성 장로 이영옥 권사 가정 (손자 100일 감사하며)

■ **예배 및 집회**

| 구 분 | | 시 간 |
|---|---|---|
| 주 일 예 배 | Ⅰ부 | 오전 9시 |
| | Ⅱ부 | 오전 11시 20분 |
| | Ⅲ부 | 오후 2시 |
| 찬 양 예 배 | | 주일 오후 5시 |
| 영 어 예 배 | | 주일 오전 11시20분 |
| 수 요 예 배 | Ⅰ부 | 오전 11시 |
| | Ⅱ부 | 오후 7시 |
| 금요기도회 | | 오후 8시30분 |
| 새벽기도회 | | 오전 5시30분 |

##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예수님을 닮아 섬기는 자 되게 하소서.
2. 여름성경학교, 수련회 은혜롭게 준비되도록
3. 칼빈탄생500주년기념, 장로교의 날 행사 은혜롭게 진행되도록
4. 아가페타운 건설 공사 위하여
5. 공의와 질서가 회복된 사회 이루고 북한의 전쟁위협은 사라지도록

■ 교회오시는 길